



이주 노동현장에서 일하며...

이주노동자
Ma1.16



인권정보자료실
Ma1.16

이주 노동현장에서
일하며...

남종지추 / SMWC

이 책은 경기문화재단의 재정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낯설**인가?

그저 가볍게 친구들과 수다를 떨듯이, 그렇게 사진을 찍고 싶었다.

그리고 일상적인 그들의 모습과 생활을 진지하게 기록해보고 싶었다. 옷고, 밥 먹고, 때론 술먹고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실제 생활하는 것을 통해 우리와 그들이 같은 자리에 있음을 따뜻하게 느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을 이 땅에 불러들인 차가운 현실은, 그들의 편안한 안주를 아직까지 원하지 않은 듯 하다. 불러들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시 찾아내려 하는 이물배반적인 모습에 헛웃음으로 답하기에는 견뎌내야 하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유토피아가 아름다워 보이는 게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던가.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들이 일상을 아름답게 꾸며보는 것은 그들의 일상에서 유토피아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현실의 무게에 깔려 신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고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낯설에서 시작하여 일상으로 마감지으려던 우리의 작업은 낯설에서 출발해 또 다른 낯설이라는 일상으로 마무리지어 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된다는 의미의 일상은, 낯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일상에 다를 이니게 된 것이다.

결국 집과 공장에서의 만남은 거리와 농성장에서의 만남으로 바뀌어갔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설계는 떠나는 공항에서의 어색한 웃음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친구가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은 분명 아닐 것이다.
특히 한참 젊은 나이고, 함께 고생하는 처지라면 그 시간은 더욱 단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노동자가 낯선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 하다.
그 시간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는 순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다.

가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의심해볼 때가 있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카메라를 들어야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때는 더욱 많았던 듯 싶다.

얼마 전 한 유명 잡지사에서 초청한 포토저널리스트 레지의 말이 생각난다.

'사진기자가 카메라를 들지 못하는 때는 딱 한 가지의 경우일 뿐이다. 바로 지금 당장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들여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셔터를 눌러대던 레지의 영상이 또한 기억한다.

하지만 슬피서 눈물을 흘리는,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 사람을 향해 요란한 셔터를 눌러대는 것은 결코 쉽게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넋을 잃고 있다 기록을 하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후회는 그 이상 크다는 것 역시 새롭게 알게된 과정이었다.

이제는 항상 고민은 하게 된 듯 하다.

카메라에 어떻게 생활과 일상의 치열함을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금 나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 치열함을 고민하고, 아직도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 무언가의 의미를 찾고 있을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

하지만 그 고마운 친구들은 지금 내 곁에 없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왜 내 곁에 없는가?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해지만, 내가 이 책과 사진을 통해 하고 싶은 유일한 말이다.

이주, 낯설에서 일상으로...

3	서문
5	목차
7	1장 떠남과 만남의 기억
8	1-1. 근대의 그늘
15	1-2 한 이주노동자의 여정
23	1-3 우리 안의 경계와 세계화
29	1-4 미디어와 관용의 공동체
33	2장 친구들
34	2-1 토인의 8년만의 외출
48	2-2 위키의 방향
63	3장 고용허가제
81	4장 이주의 두 얼굴
82	4-1 연수생으로 살아남기
90	4-2 우뚝 결혼하는 날
97	5장 일상
	5-1 노동
	5-2 여가
	5-3 결혼
	5-4 종교
	5-5 공동체
138	6장 더불어 사는 사람들
	6-1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6-2 수원 센터, 3년의 소회

발행 _ 남중지주,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

기획, 구성 _ 이철호

글 _ 이철호

사진 _ 김영민, 김인성, 김정현, 우지영, 이기범, 이철호

편집 디자인 _ 김정순, 이기범

발행일 _ 2003년 12월 26일



↓
제1장

떠남과 만남의 기억

1. 근대의 그늘



“근대성이란 대략 17세기경부터 유럽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사회생활이나 조직의 양식을 의미한다.”

이 일반적인 의미에 비춰봤을 때 결국 근대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발생 그리고 성장과 그 궤를 같이한다 하겠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위 서구적인 합리적 이상을 절대적 가치로 하고 있고, 다른 한편 미묘한 인종주의와 종교차별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다.

초기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발전은 분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시장 자체를 국가의 틀을 넘어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결국 공동체적이고, 자급 자족적인 경제는 해체되고, 모든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은 자본주의의 기능적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의 변모는 필연적으로 그에 걸 맞는 사고와 양식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기 마련이다.

근대성이란 정치, 경제적 합리성의 제도화 과정이며, 계몽주의의 전파를 통한 새로운 사회 문화적 생활양식의 추구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넘어서는 어떤 의미(존재양식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는)를 가지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대적 합리성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을 표준화하고 분리하였다. 이는 경제부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작업장과 주거지를 분리하고, 작업장에서 기계적 노동과 집단적 훈련이 가능해진 포드주의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근대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인문학을 '살의 공부를 어떻게 꾸러갈 것인가'에 대한 학문이라 말한 한 인문학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문학의 위기를 동양과 서양의 만남, 전통과 근대의 만남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라 말하고 있다.

즉, 기하학적인 이성과 과학기술문명 및 물질적 풍요를 현대문명이 가져다 주었다면, 그 반대급부로 인간의 소외와 생태계의 위기, 자연과 인간의 괴리 그리고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등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근대의 형성을 왜곡된 만남에 기반하고 있는 한국에서 그 반대급부가 클 수밖에 없다.

2. 한 이주노동자의 여정



그래서 우리는 서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근대화의 그늘 속에서 항상 비교 당해왔다고 볼 수 있다. 서구의 이성이라는, 자본주의적 질서라는 것 자체가 바로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들의 시각에서는 11세기 십자군이란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교도들을 죽이는 일이었다고, 서구 제국주의 역시 침략이 아니라 선교와 문화의 이식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비교를 통해 우리의 근대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구조와 사고를 점차 내면화시켜 나갔고, 주변으로서의 피해의식은 그 주변성에서 벗어나려는 과도한 역작용, 즉 개발독재나 기타 권위주의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왜곡된 근대성은 우리 스스로가 중심이 되었다는 중심아류에 만족하면서, 중심과 주변의 논리를 동아시아의 공간 안에서 새롭게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출입국관리소. 건물 안에서 밖까지 길게 사람의 줄이 늘어서 있다. 그들에게 출국은 다가올 현실에 대한 기대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 몇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또 몇은 상처만을 안고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왔는가?

그들의 고향은 아직 근대화라는 자본주의적 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수공업적이고 자급 자족적인 공동체일 것이다.

하지만 근대가 교통과 통신을 통해 시, 공간을 압축하였듯이, 그들 역시 세계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구조의 한 자락에 머물러 있으며 그에 대해 동경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아직 성숙되지 않는 구조와 수입되어진 문화와 양식에 의한 동경의 불일치는 공간의 이탈과 기존 구조와 양식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떠남은 쉽지가 않다.

학교를 졸업했지만, 무언가 할 게 없는 고향. 그곳은 그의 부모나 형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년 내내 농사를 지어보지만 도시로 유입되는 각종 문화와 경제를 쫓아가기는 역부족이다.

하나둘씩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친척들은 째지 돈을 풀고,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대부자본 등의 힘을 빌어 새로운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기대하며 고향을 떠나온다.

그는 이미 개인이 아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책임지고 있는 희망이며, 상상할 수 없는 저급에 몸이 팔려온 임금노예에 다름 아니다.

굳은 각오를 가지고 들어온 한국.

하지만 그 각오만으로 버티기 힘들 정도로 힘든 생활이 계속된다. 그래도 앞으로 펼쳐질 미래와 기다릴 가족을 생각하며 하루를 버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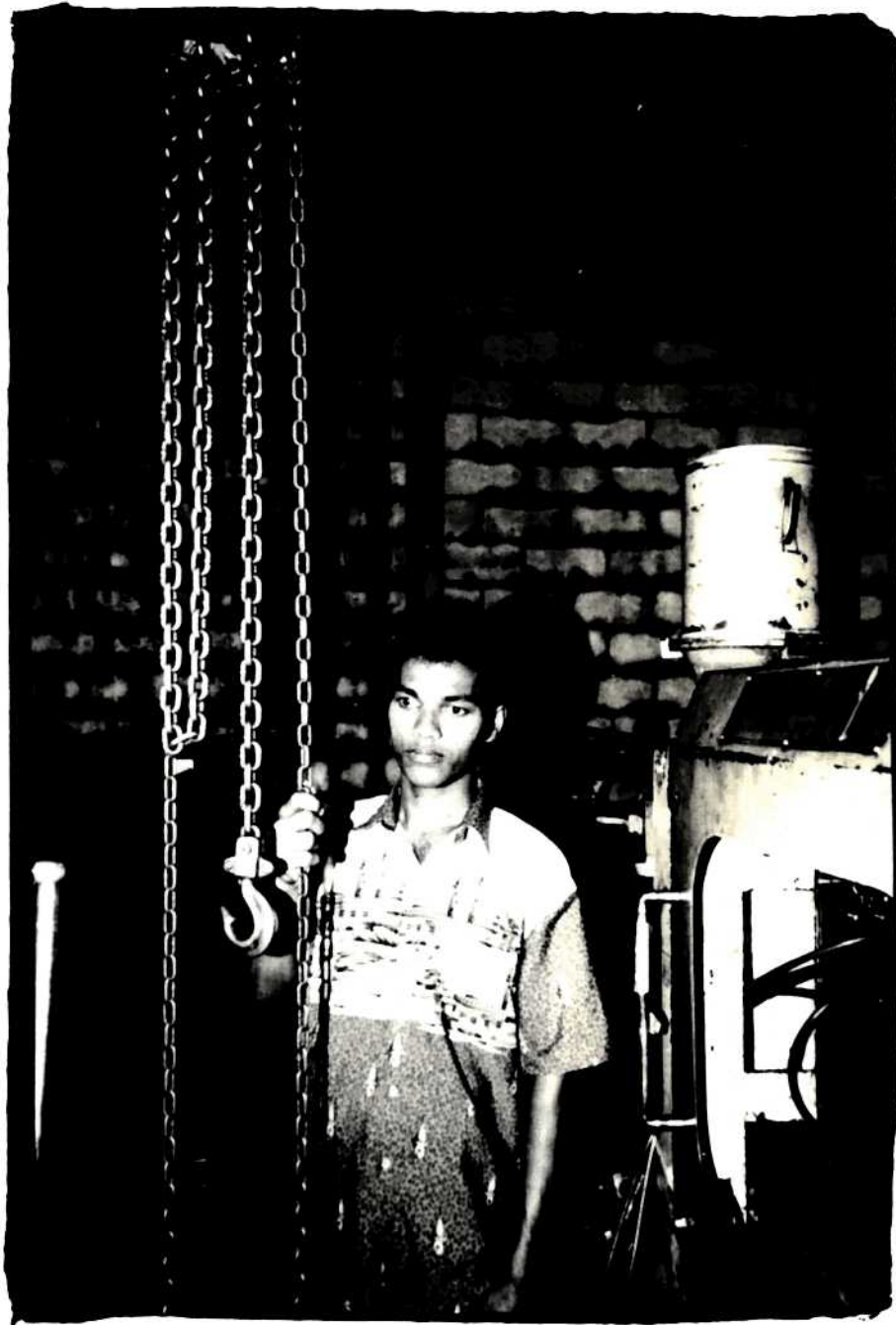
이미 결혼할 시기도 지났지만, 밖으로의 외출은 두렵기에 그저 주변의 친구들과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외로움을 달랜다.

그렇게 버틴 몇 년, 결국 연수업체에서 배운 것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법, 비등록노동자로서의 생활이 시작된다.

신분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 얻는 것도 많다.

일단 월급이 많아졌다. 그만큼 저축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도 그만큼 가까워진다.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연수생과 그들을 배웅하고 있는 가족들. 이제 개인으로서의 그들은 존재를 하나씩 지워가게 될 것이다.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는 게 유일한 낙이다.

같이 신세를 한탄하고, 놀이도 보면 고향에 대한 향수를 그나마 달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즐겁지만은 않은 만남이다.

힘들고 어려운 한국생활, 쉽지 않은 일들은 계속 발생하고, 때로는 다치고, 죽는 일까지 빈번하다.

그래도 도움이 될까 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친구들이 모여 가보지만, 마음만이 더 아프다.

입에 깊숙이 숨겨둔 돈을 조금씩 꺼내 보태 줘 보지만,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아는 우리로서는 안쓰러움만 앞선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이제 고향에 갈 때가 되었다.
 하지만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사장은 차라리 별급을 물렸다고 한다.
 지난 몇 년을 함께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는 그냥 쓰다버리는 기계 부속품인가?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끔은, 무척 궁급하다.
 그래도 몸만이라도 무사히 돌아가고,
 약간이나마 돈을 저축한 것에 감사할 해야하나 보다.

그렇게 한국을 떠난다.

3. 우리 안의 경계와 세계화



일반적으로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들 말한다. 그 정확한 기준이나 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하지만 소위 서양 중심의 세계관이나 그 문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때를 묻는다면 그때가 바로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익히 알다시피 우리에게 서양근대문물과 그 세계관의 유입은 폭력적인 형태를 띠었고, 그 잘못된 만남은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에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게 우열의 비교와 그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이라 할 것이다. 자본주의 발전부터 왜곡된 형태를 가지는 바람에 '천민자본주의'라 불리는 한국의 사회, 경제.

값싼 노동력과 노동 및 인력의 수출 그리고 특유의 성실성으로 이뤄낸 경제발전은 아제국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혼란으로 나타났다.

8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한국경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활황을 경험했고, 이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게 되었다. 허리띠를 조금 더 졸라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밋빛 미래가 있다는 구호에 모든 국민이 환호한 것이다.

장밋빛 미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양식 삶과 그 풍요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전의 역사와 한국적, 동양적 가치관에서의 벗어남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출발선에 섰던 경제의 발전은 독자적인 세계관의 형성으로 나타난 게 아니다. 또 다른 사고와 구조의 종속을 가져왔고, 결국 대규모의 경제혼란과 사회가치관의 혼란으로 나타난다.



농성을 준비하기 위해 명동성당으로 모인 이주노동자들. 그들에게 이번 겨울은 유달리 춥게 느껴질 듯 하다.



한국을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에 모인 이주노동자들. 산더미 같은 짐 만큼 많은 시연을 안고 돌아가리라. 그들은 과연 우리의 친구로 남을 수 있을까?

성장이 멈춰진 경제의 동력을 살려내기 위해 이전 역사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방식들이 시험되었고, 그것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유연화, 세계화라는 구호이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경제구조를 '유연화'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하라는 것이고, 외국자본을 무조건 수용하여 본격적인 '세계화'를 달성하라는 것이다.

어찌 이리 근대의 형성과정과 비슷한 모습인지, 그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역사의 반복이 되풀이되었음에도, 그런 과정을 통해 발전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되었고,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전파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유연화라는 것은, 초기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통한 대량생산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생산구조와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유연화라는 것은 임금과 고용을 기업, 그리고 외국자본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권리에 다름 아니다.

결국 고용의 안정성은 파괴되었고, 한국사회는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대기업이 유연화를 고용의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듯이, 기피되고 있는 업종에 있는 영세기업의 경우 인종과 주변의 문제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다. 해외로 이질한

어려도 없는 영세기업의 경우, 조금 더 유연해진 대기업과 외자기업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좀 더 높은 강도와 낮은 임금을 요구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이다.

그렇게 먹이사슬이 형성되면서 한국사회는 생산구조와 사회 내에 새로운 계급, 계층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먹이사슬의 제일 밑단에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이 먹이사슬을 파괴할 수 없기에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안에 기생하고 있는 각종 이권단체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준에서.

세계화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으로 이름으로 나뉜 경계를 허물고, 서로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다. (물론 일부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강박하겠지만.)

하지만 지금의 세계화는 일방적인 서양 쫓아가기일 뿐이다.

물론 경제가 지상가치로 대접받고 있는 이때에, 어찌되었든 경제가 발전된 서구사회를 따라잡는 것은 나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연의식일 것이다.

서구와 우리를 구별하고, 또다시 우리와 우리의 주변을 차별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서구에 종속적인 우리는, 당한 것 이상의 차별을 통해 보상받으려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세계화는 우리 내부에까지 잠식해 들어간다. 사회는 서구화와 경제적 부의 척도로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한다. 그 최하층구조에 자리잡은 3D업종의 업주와 고용인들은 또 다른 하층민을 만들어내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주노동자가 있다.



28 이주, 낯설에서 일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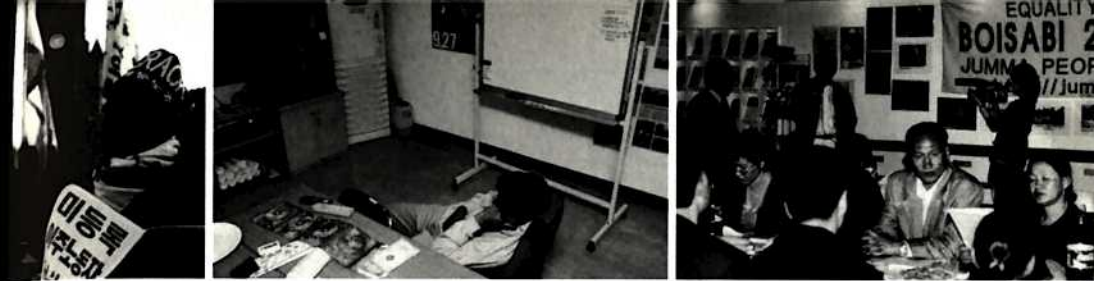
4. 미디어와 관용의 공동체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에게, 아니 이주노동자들을 바라보는 한국사람들의 시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무래도 느낌표의 아시아, 아시아가 아님까 생각된다.

느낌표가 방송되는 저녁에는 손수건을 움켜쥐고 TV를 시청하는 아주머니들이 늘어나고, 또 그런 만큼 이주노동자센터를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 역시 늘고 있다.

현대가 미디어의 세계만큼, 미디어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향과 우리 사이의 공간적 괴리감을 압축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시연을 통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프로를 통해 지난 우리 역사를 되새기며, 무관심하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지난 1년 간 이주노동자단체들이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보다 더 큰 성과를 TV는 한순간에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느낌표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을 다루고 있는 TV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에 환호를 할 수만은 없다. 각종 매체를 통해 자극되고, 인식되어진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어떤 감상의 대상이지 동등한 인간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만나보면 재주가 많고, 똑똑한 이주노동자들이 부쩍 많다.

이전에는 이들의 재능이나 사고 그리고 고민보다는 얼굴 색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편견을 가지고 애써 무시하고 지냈다면, 이제는 그 편견에 동정심이라는 감정적 외피를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그 매체는 상품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이상을, 상당한 진보를 이뤄낸 이 매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수 있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는 한국상품 수출액, 경제활동인구, 한국인 방문자 수, 민족, 해외투자액, 교통거리와 높은 상관성이 있다. 다시 말해, 노동력 수출국과 한국 사이에 만들어진 사회적 연결구조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통로를 제공하고 있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인구가 많아 노동력 수출 잠재력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연결구조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가져올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초의 이주노동자 집단의 92년 9월 서울 자양동성당에서 결성된 '필리핀인 공동체'라고 알려져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늦게 이뤄진 공동체의 결성이었고, 그만큼 그들의 생활이 빈민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거리와 TV 등의 매체에서 이주노동자를 만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이 되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일 것이다.



비록 그 공동체는 한국 정부의 압박으로 한 달 후에 해산되었지만, 다른 형태와 이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후 각 국가와 민족들은 상호부조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각기 공동체를 결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지역별로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공동체들이 본국과 유통통로 형성 및 직장알선까지 다양한 부분으로 전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동체의 경영은 역사와 구속력, 조직력이 갖춰져 있는 몇몇 공동체를 제외하고는 정부 등에 의한 다양한 압박과 활동가들의 생계문제 및 잦은 구성변동으로 인해 해산과 재결성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홍세화 교수가 오랜 프랑스 생활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왔던 게 '톨레랑스'라는 말이다. 한국사회에 극단적으로 결립된 관용의 정신에 대한 자성과 자각의 일침이었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가지왔던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정과 관용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동정으로 대상으로 보면 결코 관용은 성립되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은 집단이 아닌 한 개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92년 첫 명동농성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은 계속되어왔고, 작년과 금년은 보다 집단적이고, 조직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들 역시 한국사회의 구조와 그들의 존재가치를 인식하게 된 것이고, 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관용이며, 그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이다.

제 2장 친구들 (Friends)





1. 건실한 가장 토안의 8년만의 외출

평생 농사만 짓다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 8년 전 한국을 찾은 토안.

삼모작으로 진행되는 농사일에 쫓겨 결혼도 하지 못하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는 하롱베이를 옆에 두고도 바다를 한번 보지 못했다.

한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농사를 접고 일자리를 찾아 호치민으로 왔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결국 선택한 게 한국 행. 월 30만 원짜리 연수생이 시작이었다. 다행히 농사일에 다져진 성실함으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연수가 끝난 후에도 계열회사에 남아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



보통 20대 중반이면 결혼을 하는 베트남.

30이 훌쩍 넘어버린 토안에게 결혼은 또 다른 고민거리였다.

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스트레스인 결혼문제.

토안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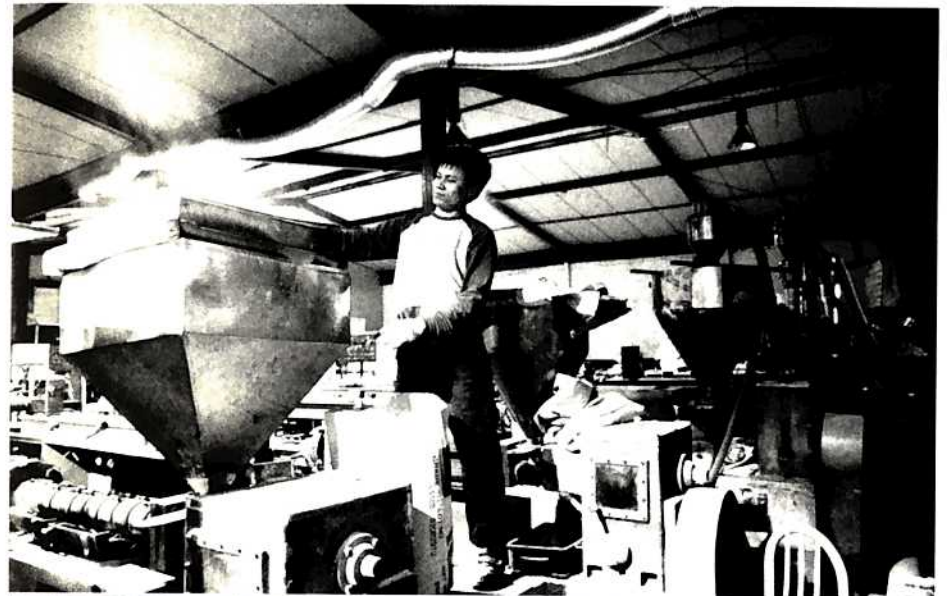
그러다 주변 공장에서 일하던 고향 동네의 여자후배를 우연히 만나고, 그 후배의 소개로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부모님의 승낙이나 가족들의 축하도 없이, 고향집에 전화로 결혼사실만을 알리고, 같이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게 결혼의 전부였다.

다만 정장을 차려입고 같이 결혼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은 집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다. 너무도 아쉬운 첫 출발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마저도 많은 각오를 필요로 하는 호사였다.

그렇게 2년 전에 시작한 결혼생활은 6개월 전에 하나의 결실로 나타났다. 바우창이 태어난 것이다.

너무도 귀엽고, 성숙한 바우창은 모든 근심과 고단함을 한순간에 날려보내는 버팀목 같은 존재였다.





어제 보면 행복한 생활이지만, 어려움은 더 커져갔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아내는 이제 일을 접어야 했다. 두 사람이 일하던 몫을 토안 혼자서 감당해야했고, 늘어만 가는 양육비용은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다.
 그래서 밤샘 야간근무도 토안은 마다하지 않는다. 약 1톤의 생산물을 토해내는 기계를 밤새도록 혼자서 지켜내고, 아침에서야 집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토안을 말한다.
 "집에 들어가서 배우자 얼굴을 보면 너무 좋아요. 피곤해도 피곤할 줄 몰라요."
 한여름, 집과 공장에만 갇혀있는 토안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바다여행을 계획했다.
 한번도 바다를 못 봤다는 토안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한번 호기를 부려본 것이다.



하지만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로 바쁜 토안이 시간이 내기가 만만치 않았고, 이래저래 날씨는 미뤄져갔다.
 어렵사리 잡은 휴가일, 무심하게 비가 내린다.
 처음으로 나들이 나가는 배우자가 불안했지만, 쉽지 않은 기회이기에 올왕리 해수욕장으로 과감히 출발을 했다.
 하늘은 흐리고, 수영을 할 줄은 모르지만 같이 간 친구들은 무척 즐거워 보였다. 외국사람들이 어울려 다니는 것을 한국사람이 싫어한다며 조심스러워하는 토안네이기에, 이런 외출이 상당히 큰 행사일 수밖에 없으리라.
 하지만 그들의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서는 습습함으로 남는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얼마 후 고용허가제가 발표되었다.
 5년 이상 체류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추방을 선언한 그 법은, 8년 간 한국생활을 한 토안이 첫 번째 적용대상자였다.



야간근무로 바쁜 토안을 찾았다.
 여러모로 근심이 많아 보였다.
 해수욕장에 찍은 바우창 사진을 보며, "바우창 사진 잘 받아요."하며 함박웃음을 짓던 것도 잠시.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며 긴 한숨을 내어놓는다. 토안을 만난 지 일년이 넘었지만, 처음으로 듣는 한숨이었다.
 처음 30만원으로 시작한 월급이, 잔업과 철야까지 하면 130만원이라는 기금이 되었다. 이제 일년만 더 고생하면 결혼과
 출산 등으로 지출한 돈까지 벌충하고, 고향에 들어가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이 공장에서 모르는 게 없는데, 염료의 혼합부터 잔 기계고장까지 혼자서 넉넉히 감당할 만큼 숙련이 되었는데,
 일단 바우창과 아내의 비행기표는 예약을 해놓았다.
 그냥 계속 일을 하라는 사장이지만, 퇴직금을 줄 생각이 없다는 말에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공장을 다녀온 얼마 후 토안에게서 연락이 왔다.
 가족과 함께 출국을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토안에게 왜 떠나냐 물어보았다.
 바우창을 보내놓고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다.
 이제는 마음을 정리한 듯 어느 정도 밝은 모습으로 말하는 토안이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리고 토안 주위로 산티미 같은 짐을 가지고 출국을 준비중인 또 다른 이주노동자의 모습들 역시 답답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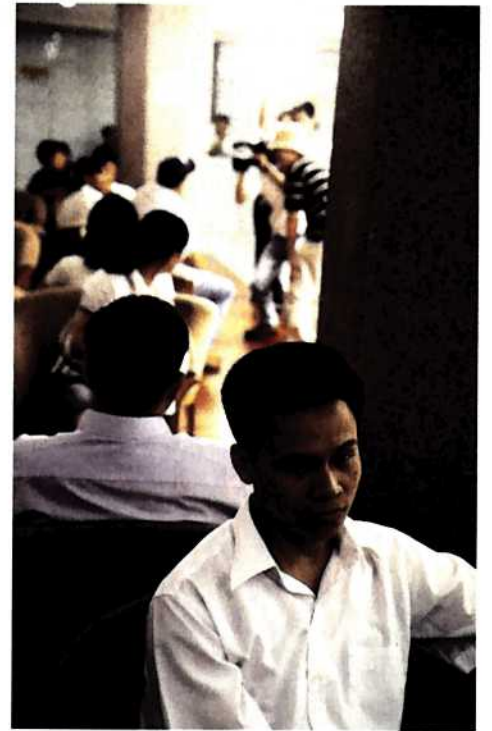
그렇게 그들은 떠났다.
 8년만의 외출을 처음이자 마지막 외출로 만든 후,
 출국이 아니라 추방이라는 병예를 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은 부채 힘들 것이라며 떠나간 토안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본다.



한국을 떠나는 날, 현실과 동떨어진 바우창의 해맑은 모습이 배웅 나온 친구들의 얼굴에 반지간다. 더이상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미소와 모습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거리에서 토안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움직이면 그만큼 지출이 많아지고, 또 거리에서 마주치는 한국인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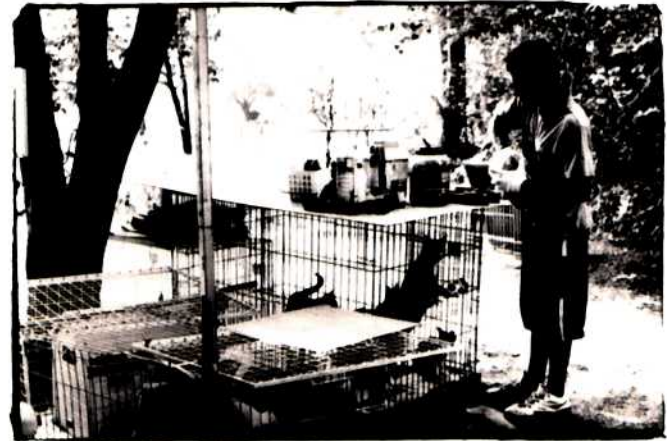


2. 수줍은 청년 위키의 방향



유달리 새카만 피부에, 여인보다 긴 속눈썹을 가진 위키.

2001년 초반 처음 만난 위키는,
우리에게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온 청년이었다.



약간은 낯선 한국 땅에서 '형님'하며 잘 웃고, 친숙하게 다가오던 그 모습이 오히려 우리를 어색하게 했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한국의 속담도 스스럼없이 할 정도로 한국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것도 당시에는 놀라움이었다.
그리고 동료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으로 밤을 새우던 그 모습은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기억에 남는다.



만난 지 얼마 안 돼 시작한 스리랑카인들의 공연과 모금행사.
오랜 향수를 달래기 위해 스리랑카의 예술단을 직접 초청했고,
그 모든 행사준비와 진행을 도맡아 했던 위키.
예술단과 숙식을 같이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었는데, 결국
이탈자가 생기고 말았다.

"이주노동자는 왜 이 땅에 오는가?"

오랜 물음이지만 결국은 답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갓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땅에 건너온 위키가 처음 품었던
마음 역시 그것이었을 것이며, 모금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스리랑카인들 역시 그러할 것이다. 또한 출국은 이를 앞두고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린,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묵인해준 다른
동료들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이리라.
그들에게 한국이라는 땅은 기회의 땅이자, 도전의 땅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삼촌과 고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했기에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과 과는 넘는 것

예술단을 초청했던 쉼터의 책임은 연수제와 출입국관리라는 법과 제도의 틀 안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땅 가장 외진 공간으로 스며들어버린 몇 명의 이주노동자를 어디서 찾던
말인가?

피곤함과 난처함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화를 내지 못했던 것은 위키가 있었기 때문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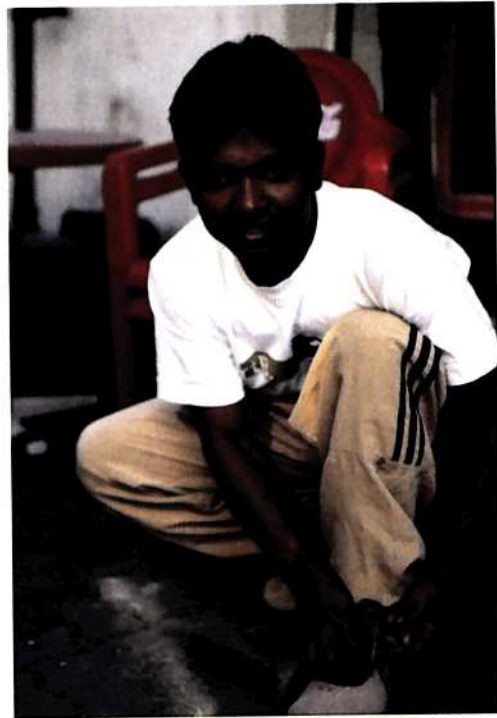
각 지역에 있는 동료와 공동체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소재를 수소문하고, 쉼터의 실무자들보다 더욱 단단하며
책임을 지려고 했던 위키의 모습에서 삶의 충실성을 보았기 때문이리라.

위키 역시 그들과 같은 목적으로 이 땅에 왔건만.

자신보다 전체를 생각하고, 이익보다는 책임을 먼저 말할 수 있는 모습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던 위키가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래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일이었고, 경제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더불어 쉼터를 가든 매우던 스리랑카 친구들도 하나둘씩 보이질 않게 되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고용허가제가 또다시 쟁점이 되었고, 각 지역마다 이를 요구하는 집회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때 안산에서 위기를 만났다.

그렇게 밝고 불임성 있던 위기가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그 긴 눈썹이 참으로 많은 슬픔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

벌써 몇 년째 한국에 와서 고생을 했지만,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주변사람을 도우려 노력했건만 결국 남겨진 것은 빈손과



허탈한 마음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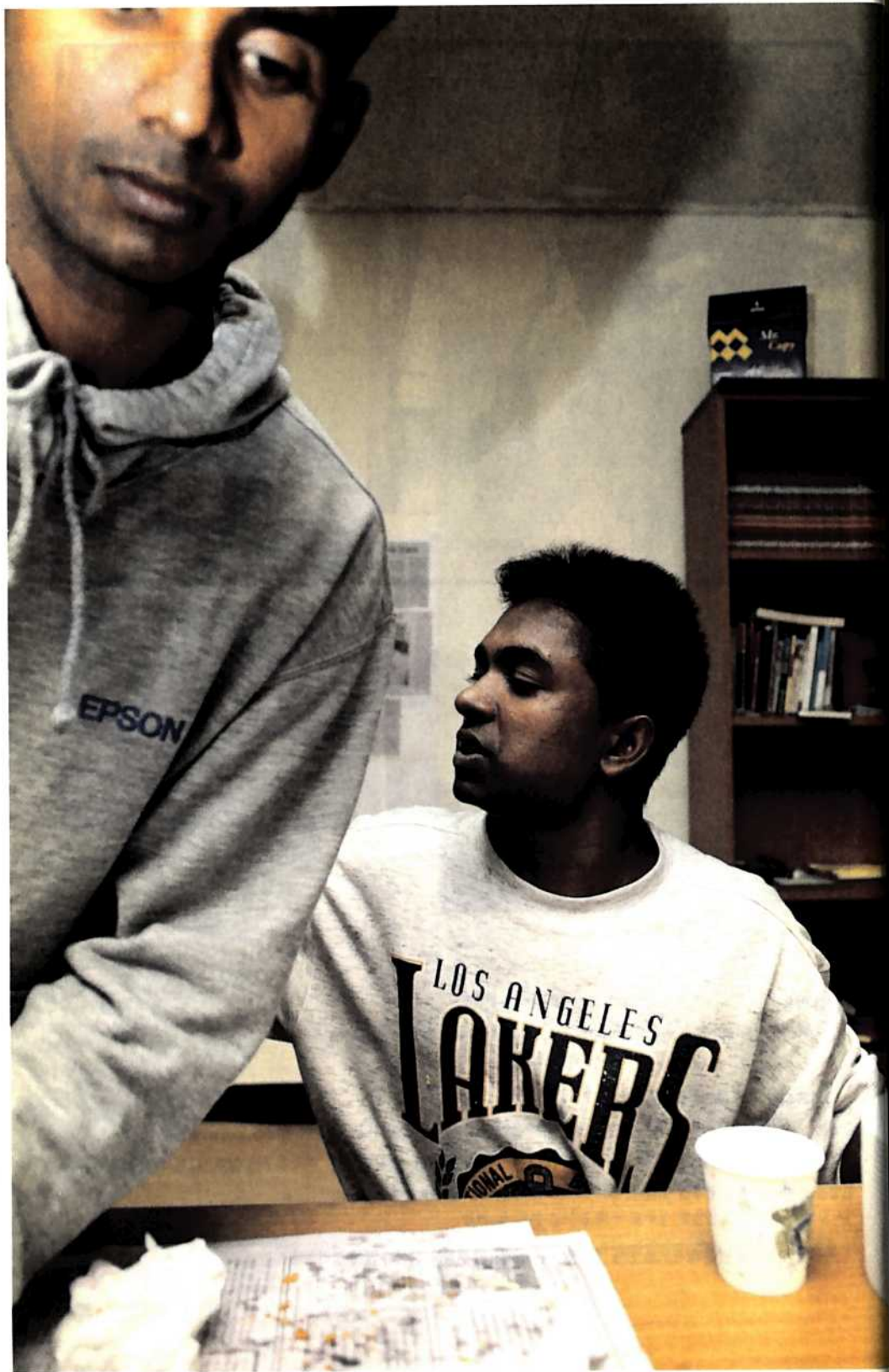
그 견딜 수 없는 허망함과 외로움에 떠났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위키.

밤샘 작업을 끝내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위해 용인으로, 서울로 쫓아다니느라 눈이 빨개진 모습을 종종 본다.

친구의 결혼식은 열일 재쳐놓고 준비부터 사회까지 도맡아 했지만, 정작 자신은 여자친구는 없다. 그래서 친구의 결혼 앨범을 보며 부러움을 감추질 못한다.

특유의 성실함과 밝은 성격으로 인해 예전 일하던 곳에서의 전화도 심심지 않게 걸려온다.



그런 친구에게도 이번 고용허가제는 결코 비껴가지 않는다.

그때의 어려움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또다시 위기의 한숨소리를 듣는다.

같이 농담을 하며 웃다가도, 가만히 눈을 내려잡는 한 청년의 모습이 가슴 깊이 스며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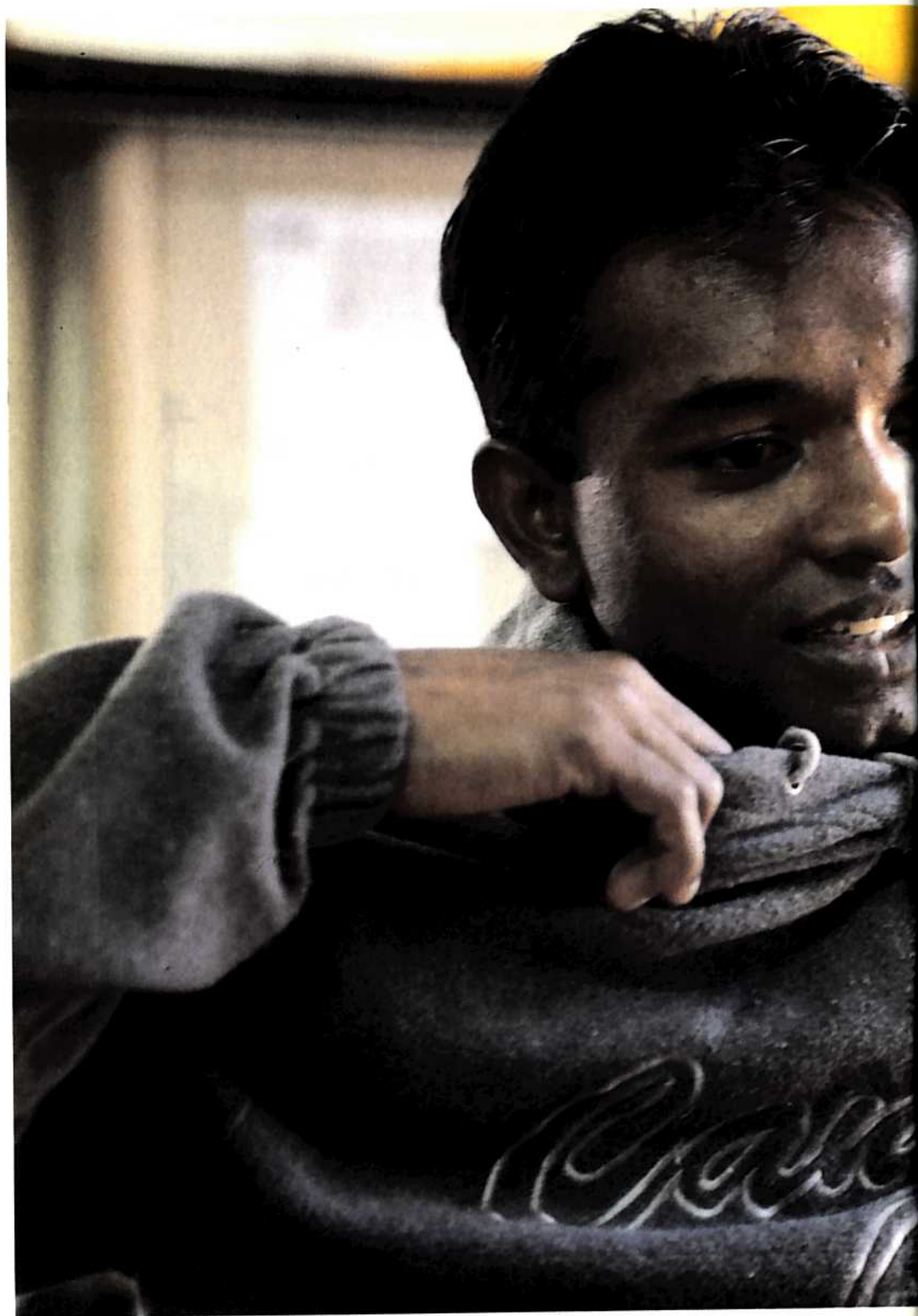




친구를 유달리 좋아하고, 그 친구들에 대한 자부심도 그에 못지 않은 위키. 그래서 거의 모든 스리랑카 행사장에서 위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결혼은 우물이 하는데, 오히려 위키가 더욱 바쁘다. 그러면서 한마디, '너무 부럽고, 외로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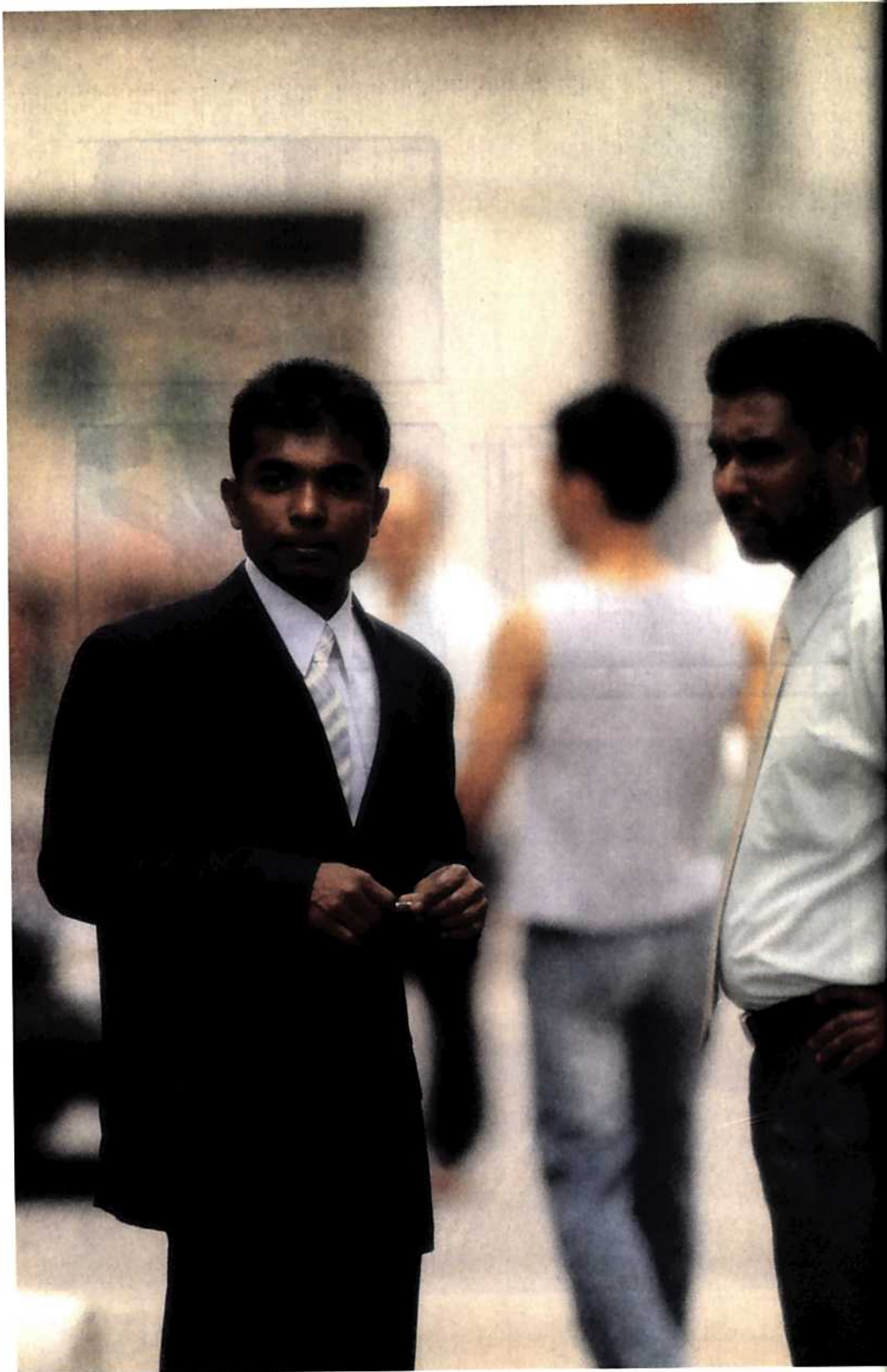




60 이주, 낯선에서 일상으로



주중에는 길 잃은 개들과 숙식을 같이하고, 주말에는 한국어학교에 나온다.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보답이 있으면 좋으련만,
이제는 이런 평온한 생활도 쉽지 않을 듯 하다.



제3장

2003년, 고용허가제의

허와실



다결투쟁



64 이주, 낯설에서 일상으로

지난 7월, 지난 10년 동안 참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던 고용허가제가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였다. 작년부터 점차 전세계 고조되었던 이주노동자 관련 쟁점과 미디어를 비롯한 국민정서상의 변화를 호재로 하여 전격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66 이주, 낯설에서 일상으로



하지만 호사나비라 할까, 아니면 언제나 그렇듯이 기존 기독교 세력들의 저항이 그토록 거센 것일까. 고용허가제는 몇 군데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고, 통과소식에 잠시 기뻐하던 이주노동자들은 대책이 없어 서둘러 이삿짐을 꾸리던가 도피할 곳을 찾아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던가, 양자택일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때 이후 주말마다 개최되던 이주노동자들의 집회에는 왜 오랜 친구들을 대꽃으려고 하는가? 라는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가 쓰인 플래카드가 맨 앞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왜 우리는 그들을, 그 중에 지난 오랜 시간 같이했던 친구 같은 이들을 대꽃으려고 하는가?"



무려 12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로 추방되고 있다.

그들 한 명, 한 명은 5년에서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한국 내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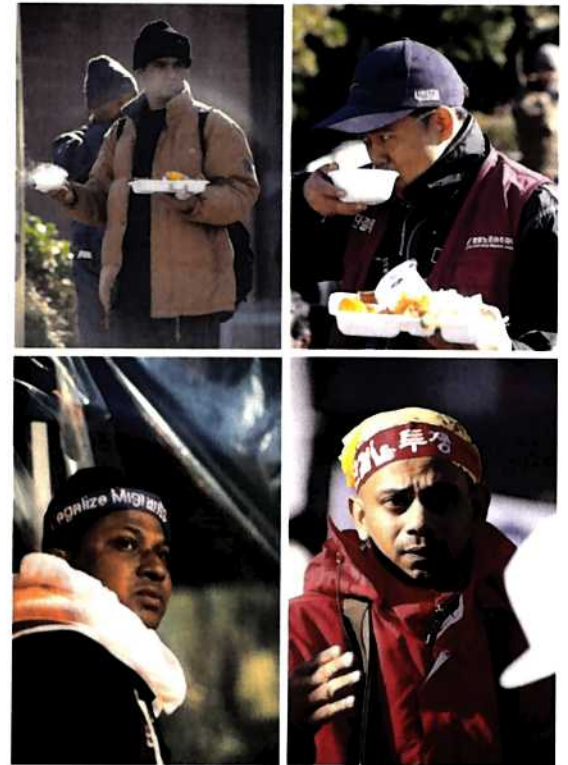
그들은 한국 사람들의 성향과 음식 그리고 그 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 사람이 모두 떠나간 사업장의 일들을 전문가처럼 꿰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식을 해먹으면서 생활해온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는 한국여자와 결혼해 정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부터 제대로 저축할 수 있겠다며 좋아했던 친구들도 있다.

그들이 추방당하는 이유는 특별히 없다. 왜 새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추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없다. 다만 법이 그렇게 규정되었다는 것 외에는.

그렇게 열심히, 절박하게 투쟁하고 호소해왔건만,



그들의 가슴 아픈 사연은 하나둘씩 묻혀가고, 거리에 이주노동자들의 흔적 또한 사라져간다.

그렇게 지린 현실이 원망스러워질까.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 친구들이 하나둘씩 아픈 이별을 전해주고 떠나간다.

지금은 하나의 이름과 빛 바랜 사진으로 남았지만, 그들의 가슴속에는 살아 숨쉬는 시린 사연들이 차곡차곡 쌓여놓았을 것이다. 그곳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었기에, 그 시린 마음을 담아둘 공간이 그 어느 곳에도 없었기에 결국 그들은 가혹한 단절을 택했으리라.

그 단절에 대한 슬픔과 압박을 이겨보고자 전국의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와 명동, 성공회성당에 하나둘씩 이주노동자들이 모여들었다. 짜늘한 바람을 막기 위해 천막을 둘러치고, 색에 상관없이 넘쳐나는 온정과 절박함을 하나 가득 담아내기 시작했다.

스스로 규율을 세우고, 조급해지는 마음을 서로 달래주며, 절망과 단절보다는 희망과 정착을 위해 그렇게 어울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비록 2/3나 되는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했지만, 그들의 위대한 신분은 아직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작업장 이주의 제한은 새로운 노예제의 다름 아니다.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다는 권리를 획득했다는 이야기이다. 그것이 비록 평생을 자본주의에 매이는 족쇄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그는 '노동자'라는 이름을 획득하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노동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다면, 이제는 감실히 시장에 나설 수는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 나왔다고 팔 수 있는 권리가 획득된 것은 아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듯이, 어렵고 복잡하게 꼬이고 꼬인 법조항들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로서 팔릴 자유만을 보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계약과 거래라는 것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타란티노의 영화보다 많은 피를 거리에 뿌리고서야, 근대의 인간은 평등한 거래를 보장해주는 인간관계를 법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거래와 계약이라는 것은 이런 동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으로서의 노동자가 가지는 힘의 열세를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의 힘과 노동권이라는 법, 제도적 장치로서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구속되는 착압의 현실을 보면 근대에 쟁취한 몇 줄의 문구가 얼마나 어렵게 구현되는 것인지 되새기게 된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법과 제도를 제정한다면서, 노동력을 팔 수 있도록 거래하고, 계약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봉쇄해버린 것이다.

분말의 전도이자, 법의 지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세기와 시대 그리고 나라를 초월하여 관통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있을 것이라 믿지 않는다.

어떤 사회나 국가에서 하나의 법과 제도 그리고 그의 바탕이 되는 사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나 현실이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관련된 법이 제정될 때는 필연적으로 그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힘들의 대결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번 법의 제정과 집행은 현재 한국사회 힘의 흐름이 어느 지점에 와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속사는 얘기한다.

"살마 정부가 그 정도도 생각하지 않고 법을 제정했을까? 이제 정부에서 그 정도 해주었으니, 열심히 일만하면 된다."

아시아, 아시아를 보면서 흘린 눈물이 가식은 아니었으리라.

하지만 한순간의 동정이 결코 그들에 대한 이해로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다.

가장 먼저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법그릇 싸움을 벌여야하는 몇몇 기득권 층의 경우 동정이 현실이 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주일의 한 시간 TV를 통해 본 이주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뿌리깊은 채국주의와 사대주의적 차별의식을 놓이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리라.

70년대 중동과 독일의 노동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우리네 이웃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흘린 눈물들은, 뒤돌아서 현실의 가부장적인 얼굴의 이방인을 보노 순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법과 제도를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친구들을 말 한마디 못하고 쫓아 보내는 이 현실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